

「田使君賡和詩」에 보이는 徐福傳說에 관하여*

金泰燾**

(e-mail : tdkim@hanseo.ac.kr)

目次

서론

본론

1. 「望武陵島行」의 詩體와 해석문제
2. 한유의 「奉酬盧給事雲夫四兄曲江荷花行見寄」 이해에 관한 기초적 시도
3. 「田使君賡和詩」의 해석과 서복전설의 구전성
4. 서복관련 한시와 구전성

결론

서론

1253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동안거사 이승휴(1224-1300)의 「望武陵島行」이라는 시에서는, 三陟(眞珠府)의 蓼田山城에서 울릉도를 바라보며 그 仙境을 상상하며 읊고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賡和詩로서, 田使君이라는 그 지방 관리가 울릉도에 관해 읊고 있다. 그런데, 전사군의 讐화시에서는, 이승휴의 시에 화답하는 것인 만큼 울릉도를 도원경과 같은 신선세계로 묘사하면서도, 진시황 때에 불로초를 찾아 神州로 떠나서 돌아오지 않은 서복의 3千童冠 무리의 후예가 있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보인다 (吾聞祖龍遣徐福。遠掇援草神州裏。三千童冠去不還。). 또한 그 3천 童冠 무리의 후예인 울릉도인이 언

* 본 논문은 2008학년도 한서대학교 교비학술연구 지원사업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임

** 한서대학교 일본학과

제인가 반란이나 약탈과 같은 일을 일으켰음을 암시하고 있다 (鮑魚無賴腥風起-절인 생선 무리배들이 비린내를 풍겼다). 두 詩는 몽고의 고려에 대한 4차 침입 (1247년 7월부터 1253년 4월)이 종료되고 5차 침입(1254년 7월부터 1255년 2월까지)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여몽전쟁이 소강상태이었을 때¹⁾에 요전산성에서 농성하던 중에 지은 것이니까, 이 무렵에 고려에서는, 특히 삼척·울진 지역에서는 울릉도인의 서복 후예설이 존재하였음을 시사한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는 한일 간의 문학 작품에 보이는 상호 인식관계를 탐구하는 데두리안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문학작품으로는 주로, 신라·고려·조선 초기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일본에 관한 인식의 양상을 탐구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대부분 한시문이다. 고려 후기(서기 1300년대)로 가면서 일본과 관련하여 <서복>전설에 관해 읊고 있는 한시문이 많이 눈에 띈다. 즉, 「서복의 최종 정착지는 일본이고 일본인은 서복의 후예이다」라는 종류의 인식이 주류를 이룬다. 그런데,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田使君賡和詩」에서처럼, 한반도 영역 내에도 서복 집단이 존재했던 것 같은 인식이 보이는 극소수의 한시문도 보인다. 왜 이렇게 후기로 갈수록 <일본인=서복후예>설이 주류를 이루는가 하는 문제가 장차 풀어야 할 과제인데, 이것은 별고에서 다루기로 하고, 본고에서는 우선 「望武陵島行」과 「田使君賡和詩」에 보이는 <서복전설>에 관해 생각해 보겠다. 또, 그 방법으로서 「望武陵島行」과 「田使君賡和詩」에 관한 詩體의 문제, 정확한 해석의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고, 그 밖에 방증할 수 있는 자료(문헌기록, 설화 등)의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望武陵島行」과 「田使君賡和詩」의 詩體에 관해 탐색한 다음에 각 시의 해석과 그와 관련한 각 典故·用事의 검토, 마지막으로 울릉도와 서복전설과 관련지은 한시문의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 본고에서는 동해안 설화관련은 생략하기로 한다. 진시황과 관련한 약간의 설화가 보이기는 하지만 본고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논하려면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한시문과 역사에 문외한이면서 주된 연구 대상이 한시문으로 되어 있어서 그 기초적인 한계를 실토할 수밖에 없는데, 이 방면의 연구가 많지 않은 것을 생각해 보면, 새로운 초석을 놓는다는 보람도 느낀다. 특히, 서복전설과 관련지어 「望武陵島行」과 「田使君賡和詩」를 본격적으로 다룬 것은 管見으로는 보지 못하였다. 본고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많은 국문학(한문학 포함)·중문학·역사학 분야의 선행연구에 힘입은바 크다.

1) 盧啓鉉, 『麗蒙外交史』, 甲寅出版社.

본 론

1. 「望武陵島行」의 詩體와 해석문제

이하에 제시한 「望武陵島行」의 서문에는 이승휴와 전문윤이 울릉도를 바라보며 그에 관한 시를 읊게 된 배경이며, 장소, 때 등이 잘 설명되어 있다.

越癸丑秋。因避胡寇。一方會守眞珠府蓼田山城。城之東南面。溟濔際天。而四無涯極。中有一山。浮沈出沒於雲濤煙浪之間。晨昏媚嫵。若有爲之者焉。父老云。武陵島也。江陵田使君命予賦之。聊以鄙語形容云。(계축년 가을에 몽고의 난리를 피하면서 일방으로 眞珠府 요전산성에 모여 수비하였다. 성의 동남쪽은 바다가 하늘에 닿아 사방이 끝없이 펼쳐졌다. 그 속에 산이 하나 있는데, 구름, 물결, 안개, 파도의 속에서 떴다 가라앉았다, 나타났다가 잠겼다 하였다. 아침 저녁에 더욱 아름다웠는데, 마치 무슨 일을 하는 것 같았다. 노인들이 “무릉도입니다.”라 하였다. 강릉 전 사또가 나에게 시를 지으라 하기에, 서툰 말로 형용한다.)²⁾

이승휴·전문윤 등이 모여 있는 곳은, 「眞珠府蓼田山城」이므로, 오늘의 삼척시 바닷가에 위치한 고산성이다³⁾. 이곳은 바다 쪽이 거의 절벽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내륙면인 삼척시 쪽도 가파른 능선을 이루어 사방이 접근하기 어려운 천연의 요새지이다. 그리고, 바다 쪽은 동쪽으로 망망대해가 펼쳐진다. 때는 1253년 가을(癸丑秋)이고, 이승휴의 나이 30이 된 해이다. 지난해에 崔滋의 主試 하에 급제하여, 고향 어머니에게 인사 왔다가 몽고의 침입을 당하여 길이 막혀 그대로 농성하게 된 것이다⁴⁾. 성의 동남쪽으로 아득히 먼 바다 가운데에 산이 하나 있어 파도와 안개 사이로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데, 마을 노인이 武陵島라 가르쳐 준다(父老云, 武陵島也.). 이승휴 등이 이전부터 울릉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 눈앞에 보이는 섬이 무릉도(울릉도)라는 사실은 마을의 노인으로부터 들어서 비로소 알게 된 것이다. 울릉도에 관한 지식은 구전을 통한 것임을 이미 밝히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

2) 본고에서는 <『動安居士集』 진성규 옮김, 2009, 지식올만드는지식>의 번역에 의존하였는데, 해석에 있어서 보충이 필요하거나 의견이 다른 곳은 필자가 改訳하였다.

3) 『三陟市誌』, 1995

4) 몽고의 고려에 대한 4차 침입(1247년 7월부터 1253년 4월까지 모두 4차례의 몽고침입이 있었다.)이 종료되고 5차 침입(1254년 7월부터 1255년 2월까지)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여몽전쟁이 소강상태이었을 때이다. 소강상태라고는 하지만, 몽고군은 1253년 7월에 침입하여 철원까지 함락하고 충주성을 포위하고, 고려정부와 출륙환도, 고려왕의 친조문제, 다루가치 설치, 몽고군철수 문제 등을 교섭하고 있었다.(盧啓鉉, 『麗蒙外交史』, 甲寅出版社), 이승휴의 행보에 관해서는 변동명의 「이승휴의 생애와 저술」(진단학보, Vol.99, 진단학회, 2005) 참조.

섬을 바라보고 있자니 전문윤이 시를 읊도록 명하여 읊는다고 하는 것이다(江陵田使君命予賦之).⁵⁾

전문윤의 생몰연도는 알 수 없으나, 이승휴가 고향 삼척으로 돌아오기 전부터 강릉의 수령을 지내다가 몽고의 난을 만나 이승휴 등의 지역민과 함께 농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강릉은 당시에는 「滄海溟州道」이었고, 삼척은 「三陟縣」이었는데, 몽고 침략을 당하여 삼척에는 산성을 쌓아 주민을 이주시켜 항거하는 태세를 취하고 있었다. 평시에는 강릉이 삼척보다는 큰 행정단위로서 그 지역의 중심이지만, 전시에는 삼척이 군사적 중심지이었던 것 같다.⁶⁾ 그래서, 몽고의 4차 침입을 당해, 강릉지역과 삼척 지역의 관민이 요전산성에서 농성하게 된 것 같다.⁷⁾

전문윤에 관한 기록은 많지 않아서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兪千遇(1209~1276)가 同年(같은 해에 과거 급제한 사람)의 전문윤을 殿中侍御史로 천거하였다는 기사로 보아⁸⁾, 대략 유천우와 비슷한 연배 아닌가 생각된다. 요전산성 농성 무렵에 한시 2수를 창작한 이승휴와 전문윤은 그 이후에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다만, 1270년 강화도에서 삼별초의 난이 일어났을 때의 기사가 각각 보이므로 어떤 형태로든 인연이 계속되고 있었지 않을까 추측해 볼 따름이다.⁹⁾

「望武陵島行」이라는 詩題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이는 行體라는 악부시의 일종이다.¹⁰⁾

5) 江陵田使君이 전문윤인 것은 『동안거사행록』 권제1의 첫머리 즉, 「望武陵島行」의 바로 앞의 詩題인 「江陵田使君所蓄明皇晏起圖(諱文胤勸賦之)」에서 알 수 있다. 전문윤이 소장하고 있는 「明皇晏起圖」(당나라 현종이 양귀비와의 사랑에 빠져서 늦게 일어나는 등, 정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그림)에 관한 시를 읊도록 전문윤에게 권유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6) ①몽고 침입을 당해 고려 정부는 삼척에 산성을 쌓고 주민을 移居시켜 항전하려 하였는데, 지역 주민들이 권력자에게 뇌물까지 주면서 그 계획을 무산시킨 적이 있다는 기록이 보인다. 그만큼, 지역민들에게는 고통이 심하게 賦課되는 시기이었을 것이다 (고려사 권제105 열전 제18, <柳墩> 편). ②강릉이라는 정식 명칭은, 1263년의 「강릉도」 혹은 1308년의 「강릉부」로 된 이후부터이지만, 그 이전에도 성묘별호(중국의 군현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거나 雅화된 명칭)로서 강릉이라는 호칭이 있었다(박도식, 「강릉의 명칭 유래」, 강원민속학, Vol.22, 강원도민속학회, 2008). 그러므로 「望武陵島」에서 「江陵田使君」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이러한 별호이지 정식 호칭은 아닌 것 같다.

7) 왜구의 침입을 당하여 미륵신앙으로 극복하고자, 1309년 8월 강릉도 존무사 김친호와 강릉부사 박홍수·삼척현위 조신주 등 동해안의 지방관들이 모여 미륵부처님께 서원하며, 평해 해안언덕에 100조·삼척 맹방촌 물가에 250조·강릉 정동촌 물가에 310조·울진 두정에 200조 등 동해안 5개소에 모두 1,500조의 향나무를 묻었던 예도 보인다. 『척주지』 참조.

8) 『高麗史』 105卷·列傳18·諸臣·「兪千遇」.

9) 이승휴는 삼별초 진영을 탈출하여 임금으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삼별초 토벌 방책과 백성 수탈방지를 건의하였다(『고려사』 「李承休傳」). 전문윤은 府庫를 약탈로부터 지켰다(『고려사』 「배중손전」).

10) ①翁森(송말원초의 은거자), 『一瓢稿』: 歌行體也是樂府詩的一種, 凡放情長言, 雜而無方; 步驟馳

武陵島行의 「行」을 보통명사인 「길」의 의미로 사용하여 「무릉도로 가는 길(路程)」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시에서는 「무릉도로 가는 길」을 읊은 곳은 보이지 않는다. 서문에서 밝히듯이 눈앞에서 떴다 가라앉았다 하고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무릉도를 형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무릉도를 바라보며 지은 시(行)」라는 의미를 나타낸 것이다¹¹⁾.

한시에 있어서, 詩題의 해석이나 詩體의 규정은 그 詩意를 정확하게 해석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다. 한시에서의 詩體의 개념이나 그 범주 정립에는 이론이 분분하지만, 대체로는 <고체시> · <근체시> · <악부>로 분류한다. <고체시>는 당나라 이전의 古詩를 포함하여 율시로 되어있지 않은 압운이나 句의 字數 · 句數에 제한이 적은 시를 말한다. 이에 대해 <근체시>는 당나라 시대에 정착한 <율시>를 말한다. 그런데 일종의 古詩이면서도 독자적인 형태나 성격을 갖는 시에 <악부시>가 있어서 그 개념 규정이나 범주 설정 및 유형분류에 異論이 분분한 상태이다¹²⁾.

한국의 악부시는 중국의 악부시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우선, 중국에서의 악부시의 전개 과정을 개관해 보면, 『詩經』 시대에 民歌를 수집하거나 그 民歌에 곡조를 붙이는 「樂府」라고 불리는 관청이 있었다. 처음에는 관청 이름이던 것이 그곳에서 수집되거나 作詩되는 樂府詩 자체를 가리키는 의미로 변하여 갔다. 그리고 魏晉 시대에는 악부에서 만들어지던 악부시를 모방하여 그 제목이나 詩意를 모방하는 擬古樂府가 성행하였다. 이것이 唐代의 杜甫를 시발로 하여 白居易 무렵에는 樂府詩題를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시체와 내용을 추구하는 新樂府 운동이 일어난다. 한국에도 고려 후기 무렵부터 악부시가 도입되어 제작되었다고 하는데, 중국과는 달리 본격적인 악부시 제작의 유행은 조선후기 무렵이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악부시의 특징은 두보나 백거이 등의 신악부 창작의 경향과 유사한 점이 지적되고 있다¹³⁾.

聘, 疏而不滯, 皆稱歌行. 樂府, 歌行都是舊詩的一體. 歌爲總名, 鋪張本事而歌曰行. 漢時稱歌, 稱行; 唐人合稱「歌行」. ②徐師曾, <樂府>, 『文體明辨』 권6 장2-3. “又按樂府命題 名稱不一 蓋自琴曲之外 其放情長言 雜而無方者曰歌 步驟馳騁 疏而不滯者曰行 兼之曰歌行 述事本末 先後有序 以抽其臆者曰引 高下長短委曲盡情以道其微者曰曲 吁嗟慨譎悲憂深思以呻其鬱者曰吟 因其立辭之意曰辭 本其命篇之義曰篇 發歌曰唱 條理曰調 憤而不怒曰怨 感而發言曰歎 又有以詩名者 以弄名者 以章名者 以度名者 以樂名者 以思名者 以愁名者”; 李起炫의 「악부시의 범주설정과 유형분류」 (『한국시가연구』 vol6. 한국시가학회, 2000)의 각주 12)로부터 재인용.

- 11) 필자가 주로 의지하고 있는 <『動安居士集』 진성규 옮김, 2009, 지식올만드는지식>에서는 「무릉도 가는 길을 바라보다」로 번역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그에 따르지 않았다.
- 12) 李起炫, 「악부시의 범주설정과 유형분류」 (『한국시가연구』 vol6. 한국시가학회, 2000)에서 상론하며 분류하고 있다.
- 13) 安大會, 「한국 악부시의 장르적 성격」 (『한국시가연구』 vol1. 한국시가학회, 1997) / 황위주, 「악부시의 개념과 양식특징」 (『선비문화』 Vol.12, 남명학연구원, 2007) / 김규태, 「한국 악부시 연구」 (국어교육, Vol.65, 한국어교육학회(구-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1989)

「望武陵島行」도 行體로 된 악부시의 일종이니, 일반 악부시가 갖는 형식과 내용, 그 성질상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악부시의 범주나 유형은 의론이 분분하여 필자의 능력을 넘는 부분이지만, 기왕의 연구를 참고로 보면, 몇 개인가로 유형화할 수 있다¹⁴).

- ① 入樂 여부 - 入樂樂府, 非入樂樂府
- ② 擬作 여부 - 擬作樂府(擬古樂府·擬新樂府·擬詞樂府), 非擬作樂府
- ③ 漢譯 여부 - 漢譯樂府, 非漢譯樂府
- ④ 題材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른 분류 - 詠史樂府, 紀俗樂府, 社會樂府, 艷情樂府, 遊仙樂府, 頌禱樂府, 道德樂府
- ⑤ 서사성과 서정성에 따른 분류

그 유형을 가르는 기준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악곡이 있는가 하는 여부에 따라 <入樂樂府, 非入樂樂府>로 나누어진다. 주지하다시피 원래의 악부시는 음악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었지만 신악부운동 무렵부터 음악과 관계없는 시만 지어지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이에 속하는 것이다. 「望武陵島行」도 非入樂樂府에 속한다. 다음으로 무엇인가를 흉내 내서 지은 것(擬作)인가의 여부이다. 고악부의 시체·시의를 사용(擬古樂府)하지 않았으며 음악성이 있는 詞를 모방한 것도 아니고 사건을 보고 제목을 짓는 「卽事名篇」한 것으로 보아 신악부를 모방한 것(擬新樂府)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漢譯 여부는 해당하는 것이 없으므로, 題材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른 분류 면에서 보면, 역사 서술도 보이지 않고 설화 따위도 보이지 않으며 그저 울릉도를 신세계로서만 묘사하고 있으므로 遊仙樂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¹⁵).

(1)一色瑠璃抹天地。(2)四望無涯涘。(3)有山出沒雲煙中。(4)煙消雲散山彌翠。(5)雙分寸碧生。(6)婉轉蛾眉橫鏡裏。(7)忽大嶷然立萬丈。(8)蒼壁隨以撐天起。(9)或遠挺杳茫。(10)翠鳳沖天暫向風前止。(11)又近當我前。(12)秀色崩騰落窓几。(13)時復沒何許。(14)萬里蒼蒼空遠耳。(15)昏明恍惚似有無。(16)千態萬狀頗逐陰晴朝暮異。(17)珠宮貝闕冠其巔。(18)玄霜絳雪聯翩墜。(19)不願上界足官府。(20)願與散仙鞭笞鸞鳳相遊戲。(21)臨風放長嘯。(22)滌盡從前煙火累。(23)還將一粒金丹。(24)歸謝我賢知己。(「望武陵島行」)

(1)유리 한 색깔로 천지에 바르니, (2)사방을 바라봄에 물가가 끝이 없다. (3)산하나 있어 구름, (4)안개 속에 출몰하는데, (5)안개 걷히고 구름 흩어지자 산이 더욱 푸르네. (6)쌍으로 나뉘어 작은 구슬인 듯하네. (7)둥근 미인 눈썹이 거울 속에 빛긴 듯하네. (8)홀연히 크고 높다랗게 만 길이나 섰는데, (9)

14) 李起炫, 「악부시의 범주설정과 유형분류」(『한국시가연구』 vol6. 한국시가학회, 2000)

15) 後術할 제3장의 「田使君廢和詩」는 이 분류법에 따르면, 非入樂樂府·擬新樂府·詠史樂府·遊仙樂府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푸르른 구슬이 타원형으로 하늘을 비치고 섰다. (10)혹은 멀리 튀어나 아득한 데, (11)푸른 봉황이 하늘에 솟구쳐 잠시 바람을 향해 앞에 멈춘다. (12)또 가까이 내 앞에 다가와 빼어난 빛을 분산하여 창가 안석에 떨어진다. (13)때때로 다시 얼마나 잠기는가? (14)만리나 창창하여 부질없이 멀 뿐이다. (15)아침저녁으로 황홀하게 있는 듯 없는 듯하여, (16)천태만상이 흐림과 갸름을 따라 아침저녁으로 이채롭다. (17)구슬 궁전과 자개 문 그 꼭대기에 모자 씌우고, (18)현상 강설이 연이어 떨어진다. (19)하늘나라에 관청 일이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20)한가로운 신선과 난새 봉황과 희롱하며 서로 놀기를 바란다. (21)바람을 맞으며 긴 휘파람을 불어, (22)중전의 불 뎀 음식 걸림들을 씻어 없앤다. (23)곧 한 알 金丹을 가지고서, (24)돌아가 우리 어지신 나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사례할까나.) (「무릉도를 바라보며 지은 시」)

이승휴는 「望武陵島行」에서, 눈앞에 펼쳐지는 무릉도(울릉도)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 시의 후반에서는 신선세계의 신비로움으로 추상적인 매듭을 짓고 있다. 이는 이 지방 출신인 이승휴는 오히려 울릉도에 관한 지식이 거의 없었던 것이 아닌가 짐작되는 것이다. 이승휴는 일찍이 어려서 집을 떠나 강화도에서 수학(學)을 하였고, 이제 갓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고향 주변의 정세에 관해 들은 바가 별로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승휴는 눈앞에 보이는 대로 잘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무릉도의 모습을 신선의 세계로 묘사하고 있다. 그의 시체가 「望武陵島行」으로, 「○○行」을 취하고 있음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시는 「악부시」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民歌를 수집하여 악곡을 달던 본래의 악부시적 특성을 내세운 의도가 있었음이 짐작된다. 본인은 잘 알지 못하지만 마을 노인에게서 울릉도에 관한 명칭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 전해지는 내력에 관한 이야기 등을 듣고 노래를 읊고 있음을 짐작하게 해 준다¹⁶⁾.

이승휴의 「望武陵島行」은 24수로 된 행체(악부시체)의 시임은 이미 밝힌 바인데, 전형적인 「前景後情」의 구성을 보여준다. 즉, 24구중에서, 전반 18구는 울릉도가 눈앞에 펼쳐지는 「형상」과 그 신비로운 신선세계로서의 「형용」이 반복적 수법(사라졌다 나타나고, 작아졌다, 눈앞에 크게 다가온다.)으로 묘사되고 있고, 후반 6구가 이승휴의 「儒 · 佛 · 道」에 관한 생각의 일편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전반 18구의 반복적 묘사 수법은 악부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제16 · 17 · 18구는 당나라 한유의

16) 김균태, 「한국 악부시 연구」(국어교육, Vol.65,한국어교육학회<구-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1989) / 황위주 「악부시의 개념과 양식적특징」(선비문화, Vol.12,남명학연구원,2007)/ 이기현, 「악부시의 범주설정과 유형분류」(한국시가연구, Vol.6,한국시가학회,2000)). 특히, 이기현의 「악부시의 범주 설정과 유형분류」, (한국시가연구, Vol.6,한국시가학회,2000)에서는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歌, ○○行,○○引,○○曲...등과 같은 명칭을 붙인 시는 일단 악부시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樂府詩題를 사용한 경우 악부를 전제하고 지었거나 최소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었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詩17)에서, 제 17·18구인 「上界真人足官府, 豈如散仙鞭笞鸞鳳終日相追陪」를典故로 用事한 것으로서, 이승휴의 「望武陵島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실마리를 갖는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다음 장을 한유의 시를 해석하는데 할애하겠다.

또, 樂府詩이나 古詩이나 하는 詩體 문제는 그 시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방향 설정도 된다. 즉, 樂府詩는 개인적인 정감을 읊기보다는 사회적 문제나 군주에 대한 정치 비판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 古詩는 개인의 정감을 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므로, 「望武陵島行」과 「田使君廣和詩」는 울릉도를 바라보고 느껴지는 개인의 단순한 정감을 읊은 것이 아니라, 놓여진 험난한 현실세계를 비판적인 안목으로 읊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¹⁸⁾.

2. 한유의 「奉酬盧給事雲夫四兄曲江荷花行見寄」 이해에 관한 기초적 시도

앞 장에서 「望武陵島行」의 제16·17·18구는 아래 한유의 시 「奉酬盧給事雲夫四兄曲江荷花行見寄, 并呈上錢七兄(徽)閣老張十八助教」¹⁹⁾중에서 제 17, 18구를 用事한 것인데,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原詩의 해석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국역된 한유의 시를 입수하기도 곤란하고, 필자 나름대로 정확한 詩意의 파악을 위해 국역은 필자의 것을 달았음을 밝힌다. 아래의 시제를 보면 한유가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세 사람에게 동시에 보낸 것 같다.

(1)曲江千頃秋波淨, (2)平鋪紅雲蓋明鏡。(3)大明宮中給事歸, (4)走馬來看立不正。(5)遺我明珠九十六, (6)寒光映骨睡矐目。(7)我今官閒得婆婆(時自中書舍人降太子右庶子), (8)問言何處芙蓉多。(9)撐舟昆明度雲錦, (10)脚敲兩舷叫吳歌。(11)太白山高三百里, (12)負雪崔嵬插花裏。(13)玉山前卻不復來, (14)曲江汀滢水平盃。(15)我時相思不覺一回首, (16)天門九扇相當開。(17)上界真人足官府, (18)豈如散仙鞭笞鸞鳳終日相追陪。(「奉酬盧給事雲夫四兄曲江荷花行見寄, 并呈上錢七兄(徽)閣老張十八助教」)

17) 「奉酬盧給事雲夫四兄曲江荷花行見寄」

18) 樂府詩와 古詩의 구별에 관해서도 諸說이 분분한데, 李圭椿의 「象村의 歌·行體 漢詩에 대하여」(語文研究23, 語文研究會, 1992.12)에서, 「(1) 악부는 노래할 수 있는데 고시는 노래하지 못한다. (2) 악부에는 長短句가 많으나 고시에는 5·7언이 많다. (3) 악부는 紀功述事를 주로 하고 고시는 言情을 주로 한다. (4) 악부는 遵勁을 귀히 여기고 고시는 溫雅함을 숭상한다.」라고 분류해 놓은 것이 참고 된다.

19) 이하에서는 「曲江의 연꽃行 화답시」라고 함.

(1)가을의 曲江은 널찍하니 물결도 맑고, (2)편평히 펼쳐진 붉은 구름은 밝은 거울을 덮네. (3)大明宮中으로 盧給事 돌아가니, (4)말 달려와 올바로 서있지 않은가를 보리라. (5)(盧汀이) 나에게 주옥같은 시 96자를 주었는데, (6)칼날 같은 뜻 뼈에 비치니 睡驪目이로세. (7)나는 지금 한직이라 이리저리 헤매는데, (8)어느 곳에 연꽃이 많은지 묻겠네. (9)昆明池를 배저어 雲錦으로 건너니, (10)양쪽 뱃전에서 다리를 구르며 吳歌를 부르짖네. (11)太白山은 높이가 3백리, (12)높은 곳엔 눈을 업고 안쪽엔 꽃장식. (13)玉山 앞에서 차라리 돌아오지 않겠네, (14)곡강가의 맑은 물은 잔잔하구만. (15)내가 때로 그리워 문득 돌아보니, (16)궁궐문은 모조리 열려있고. (17)천상의 眞人は 조정일로 바쁘니, (18)어찌 떠돌이 신선이 난새와 봉황을 채찍질하며 종일토록 함께 하리. (「盧汀의 ‘曲江의 연꽃行’에 화답하여 올린다. 錢徽·張籍 두 분에게도 함께 바친다」)

위의 시는, 배불승유로 유명한 한유가 현종황제의 佛骨 모시는 일을 諫하다가(『佛骨表』), 潮州(광동성 潮安縣) 刺史로 좌천되었던 819년-820년 사이의 과정을 묘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詩題에 ‘閣老張十八助教’라고 있으니 張籍이 廣文館의 助教를 하고 있던 816년~820년 사이의 일임을 알 수 있으며, 그동안에 한유가 潮州刺史로 좌천된 것은 819년 가을 무렵부터 820년 9월 현종 死後에 소환되어 國子監祭酒에 제수되기까지의 기간 동안이다. 長安으로 소환되기 전에 잠깐 袁州(江西省 宜春縣)로 옮기었었다²⁰⁾.

盧汀이 지어 한유에게 전한 「曲江의 연꽃行」은 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아마 한유의 좌천을 위로하는 내용인 것 같다. 한유가 盧汀을 위로한 것으로 보이는 시로는 「奉和庫部盧四兄曹長元日朝回」가 있다. 1월1일 아침에 천자를 알현하는 엄숙한 장면을 묘사한 후에, 「太平時節難身遇 (태평시절은 만나기가 어려운 것) / 郎署何須嘆二毛 (말직에 있다고 어찌 반백의 머리를 한탄하는가?)」²¹⁾라고 하며, 盧汀이 늙도록 말직에 있음을 위로하고 있다. 또 한유의 화답시제에 張籍(閣老張十八助教)이 보이는데, 한유는 장적이 진사급제를 하여 장안으로 진출하도록 도와준 것을 시작으로, 이후에도 불우한 장적이 등용되도록 유력자에게 적극적으로 천거하기도 하였다²²⁾.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의 「曲江의 연꽃行 화답시」는 한유와 절

20) 金卿東, 「張籍生平事蹟考」(중국문학연구vol9, 한국중문학회, 1991) / 김태희, 「한유와 맹교시의 사실성고찰」(중국연구, Vol.36,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중국연구소, 2005) 참조.

21) 「郎署何須嘆二毛」는, 『昭明文選』 卷十五 <賦辛·志中·思玄賦> 尉龙眉而郎潜兮, 逮三葉而邁武. 唐李善注引『漢武故事』에, 한무제가 수레를 타고 郎署를 지나다 늙도록 말직인 ‘郎’에 있는 顏駟라는 사람을 발견하고는 會稽都尉로 승진시켜주었다는 고사를 전고로 삼고 있다. (「顏駟, 不知何許人, 漢文帝時爲郎. 至武帝, 嘗輦過郎署, 見駟龙眉皓髮, 上問曰: 叟何時爲郎? 何其老也? 答曰: 臣文帝時爲郎. 文帝好文而臣好武, 至景帝好美而臣貌醜, 陛下即位好少而臣已老, 是以三世不遇, 故老於郎署. 上感其言, 擢拜會稽都尉.」)

22) 金卿東, 「張籍生平事蹟考」(중국문학연구vol9, 한국중문학회, 1991)

친하게 지내던 세 사람에게 자신의 심정을 알릴 목적도 겸하여 지어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아마도 곡강 부근에서 한유에 대한 송별연이라도 있어서, 전별시라도 받은 모양이다. 제1구,2구에서는 평온한 가을 곡강의 저녁나절을 묘사하고 있다. 제3,4구는 盧汀이 궁궐(大明宮)로 돌아가 올바로 천자를 보필하는가 지켜보겠다는 친구로서의 우정어린 충고가 묻어난다. 제5,6구는 반대로 盧汀이 한유에게 전별시를 주었는데, 아침으로 벼슬 얻는 일의 부질없음을 들어 한유를 위로한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睡驪目」을 전고로 하고 있음은 아마도 한유의 「불골표」를 공격하여 좌천하게 한 반대편 무리들에 대한 표현으로 이해된다²³⁾.

제7,8구에서, 한직으로 강등되어 방황하면서도 연꽃을 찾는 것은 『離騷經』을 지은 굴원과 같은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제8구에서의 芙蓉(연꽃) 많은 곳을 찾는 것은, 중간하다 쫓겨나 이곳저곳 헤매는 중에도 굴원이 천자에 대한 사모의 마음을 표현하여 ‘마름과 연잎을 마름질 해 저고리 만들고/ 연꽃을 모아 치마를 만드네.(製芰荷以爲衣兮, 藥芙蓉以爲裳。)’라고 읊은 심정을 用事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굴원과 같은 처지인 한유 자신도 주군을 위해 연꽃 많은 곳에 가서 연잎으로 옷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다²⁴⁾.

제9구 이하는, 潮州 지방으로 이동하는 路程의 장면과 주변 경관, 그리고 장안으로 소환되기 직전에 잠깐 옮겨와 있던 袁州의 玉山 등도 언급하고 있다. 제9구의 곤명은 곤명지(중국 漢나라의 무제가 水軍을 訓練하기 위하여 장안성 서쪽에 판 못)를 말하는 것으로 그곳을 배 저어 나간 후에 양자강 하류의 南京(雲錦이라는 비단은 남경 일대의 특산이다) 방면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장안에서 양자강 하류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표현한

23) 「睡驪目」은 『莊子』 「外篇·雜篇·列禦寇篇第三十二」의 「驪龍頷下」와 같은 뜻의 典故이다. 어느 사람이 宋王을 알현하고 얻은 車10대를 장자에게 자랑하자, 장자는 황하 가에서 아들이 얻은 값진 구슬을 黑龍의 것이라고 깨트려버릴 것을 타이른 父子간의 고사를 예로 들며 경계하였다는 이야기이다. 黑龍(驪龍)은 宋王(권력자)을 말하는 것으로서, 아침으로 이익을 얻는 것은 위험하다는 뜻이다. (莊子曰: 「河上有家貧恃緯蕭而食者, 其子沒於淵, 得千金之珠. 其父謂其子曰: 『取石來鍛之! 夫千金之珠, 必在九重之淵而驪龍頷下, 子能得珠者, 必遭其睡也. 使驪龍而寤, 子尚奚微之有哉!』 今宋國之深, 非直九重之淵也; 宋王之猛, 非直驪龍也; 子能得車者, 必遭其睡也. 使宋王而寤, 子為粉夫!」)

24) 『離騷經』, 「悔相道之不察兮, 延佇乎吾將反. 回朕車以復路兮, 及行迷之未遠. 步余馬於蘭皋兮, 馳椒丘且焉止息. 進不入以離尤兮, 退將復脩吾初服. 製芰荷以爲衣兮, 藥芙蓉以爲裳. 不吾知其亦已兮, 苟余情其信芳。」(길을 잘 살피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오랫동안 망설였으나 내 이제 돌아가리. 나의 수레를 돌려 길을 되찾으리라/ 아직 길 잃은지 늦지 않은 때에. 난초 핀 언덕에 내 말을 거닐게 하고/ 산초 언덕을 달리고 또 어디에서 설까? 나아갔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허물만 입었으니/ 물러나 다시 내 처음 뜻을 따르리라. 마름과 연잎을 마름질 해 저고리 만들고/ 연꽃을 모아 치마를 만드네.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또 그만이니/ 실로 내 마음 꽃답기만 하다면.) 新完訳 古文 真宝 後集, 金學主記著, 明文堂 20-21페이지 참조.

것이다. 제10구는 한유의 우국충정이나 호와 같은 유교적 사상이 잘 전달되는 대목이다. 「脚敲兩舷叫吳歌」는 ‘양쪽 뱃전을 다리로 구르며 吳歌를 부르짖었다’는 것인데, 이는 「脚敲兩舷(扣舷而歌)」를 전고로 삼은 用事이다. 즉, 太尉 賈充의 요청으로 會稽 지방의 夏統이라는 隱士가 불렀다는 吳歌(양자강 하류 유역인 吳지역에 전하는 노래)인 『慕歌』 『河女』 『小海唱』를 전고로 들고 있다. 『慕歌』는 이전에 會稽 지방을 교화하고 萬國이 朝會하는 중심지로 만든 聖君을 그리워하는 노래라 하고, 『河女』는 물에 빠져죽은 아버지를 구하려 뛰어들었다 함께 죽은 효녀를 기린 노래이고, 『小海唱』은 오나라의 충신 伍子胥가 임금 부차에게 월나라를 멸하여 후환을 없애라는 충간을 듣지 않고 오히려 伍子胥를 죽여 바다에 버렸는바, 지역 사람들이 그 충절을 기려서 사당을 세우고 부른 노래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제10구는 군주의 도리와 충효를 근간으로 하는 한유의 유교사상을 절규하고 있는 것이다.²⁵⁾

제11, 12구는 멀리 마음속으로 보이는 장안 쪽의 태백산의 모습을 그리워하고 있다. 제13구는 소환되기 직전에 잠깐 옮겨와 있던 袁州의 玉山에서 다시는 장안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식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제14구는 장안의 친구인 盧汀이 탈 없이 평온히 지내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²⁶⁾, 제15, 16구에서 천자가 있는 궁궐 모습을 불라치면, 나라일로 바쁜 탓에 궁궐 문이 모두 열려 있어 분주하다. 이 무렵의 당나라는 安史의 亂이 평정된 직후여서, 중앙집권이 약화되고 지방군벌이 할거하여 반란이 잦던 시기이다²⁷⁾. 따라서, 천자가 있는 궁궐문은 닫힐 새도 없이 사방 모든 문이 열려서 사람들이 분주히 드나드는 것이다. 이렇게 궁중에 부산하게 드나들며 국정을 행하는 「佛骨表」에 반대하는 정적들(上界眞人)이니, 어찌 한유 자신처럼 주변 한직에 있는 떠돌이신선(散仙)이 함께 할 수가 있겠는가 하고 제17, 18구에서 맺고 있다. 또한, 제17구에서의 「眞人」· 제18구에서의 「散仙鞭笞鸞鳳」은 阮籍과 眞人(혹은 隱者·孫登)과의 故事인 半空鸞鳳(= 蘇門長嘯)를 典故로 用事하고 있다는 점이다. 阮籍이 蘇門山의 眞人(혹은 隱者·孫登)을 찾아 도교에 관해 질문을 하였는데 일체 무응답이므로 긴 휘파람(長嘯)을 불며 하산

25) 「卿頗能作卿土地間曲乎?」統曰:「先公惟寓稽山, 朝會萬國, 授化鄙邦, 崩殂而葬. 恩澤雲布, 聖化猶存, 百姓感詠, 遂作《慕歌》. 又孝女曹娥, 年甫十四, 貞順之德過越梁宋, 其父墮江不得尸, 娥仰天哀號, 中流悲歎, 便投水而死, 父子喪尸, 後乃俱出, 國人哀其孝義, 為歌《河女》之章. 伍子胥諫吳王, 言不納用, 見戮投海, 國人痛其忠烈, 為作《小海唱》. 今欲歌之.」眾人僉曰:「善.」統於是足叩船, 引聲喉嚨, 清激慷慨, 大風應至, 含水●敕天, 雲雨響集, 叱吒歡呼, 雷電晝冥, 集氣長嘯, 沙塵煙起. (『晉書』卷九十四「隱逸列傳夏統」)

26) 「曲江汀」은 「곡강 물가」라는 뜻인데, 盧汀의 이름자를 따서 표현한 것으로 본다. 이 이후는 한유가 장안으로 돌아 온 이후, 「國子監祭酒」라는 한직에 있을 무렵인 것 같다.

27) 貝塚茂樹, 『中国の歴史』中, 岩波新書.

하는데 산위에서 真人(혹은 隱者·孫登)의 鸞鳳之音과 같은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다는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다²⁸⁾. 이 이야기는 阮籍이 無言의 가르침을 받고 깨우쳤다고도 이해되는데, 주목되는 것은 「鞭笞鸞鳳」의 표현이다. 真人(혹은 隱者·孫登)으로 상징되는 「鸞鳳」을 「鞭笞(매질·꾸짚음)」한다는 것이다. 道家의 真人을 꾸짖는다는 것은, 궁중 내의 불교·도교 숭상파들을 질책하며 천자를 보필하고 싶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대목은 불교, 도교를 신봉하는 무리들을 일소하고 유교이념을 실현하는 정치를 하고 싶다는 염원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18구를 해석해 보면, 한유는 아침하면서까지 좋은 벼슬을 하고 싶지는 않고, 비록 주군의 미움을 샀지만 그 충정만큼은 변함이 없던 굴원처럼 되고 싶었고, 성군정치나 충효와 같은 유교의 덕목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러한 유교사상을 근본이념으로 하여 정국이 안정되고 왕권이 확립되기를 기원하는 우국충정의 시를 읊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망무릉도행>의 말미에서 이승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用事한 「不願上界足官府。願與散仙鞭笞鸞鳳相遊戲。(관청<혹은 조정>)의 일이 분주하기를 바라지 않고, 散仙과 함께 鸞鳳을 채찍질하며 함께 놀고 싶네)」의 해석은 이상의 한유의 시 해석을 토대로 하여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이승휴는 한유의 시를 典故로 用事하면서도, 정치사상적인 면에서 한유와 공통된 생각을 갖거나 이질적인 생각을 갖거나 하면서 시적 표현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나라의 안위가 불안한 정세는 한유 때보다 덜하지 않은 현재의 고려의 상황 때문에 관청이나 조정의 관료들이 우왕좌왕 분주한 것은 원치 않는다는 것이고, 따라서 나라가 외침에서 벗어나 빨리 안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우국충정을 보이는 것이며, 한유처럼 조정의 불교, 도교 신봉자들을 꾸짖는 것은 추종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願...相遊戲 ; 함께 놀고 싶네). 이것은, 당시의 고려 조정이 佛力으로 몽고를 물리치기 위해 大藏經造成에 국력을 쏟을 만큼 불교를 신봉하는 분위기로 가득하였던 것과 또, 이승휴 개인의 불교·도교에 대한 성향이 한유 때의 그것과는 달랐던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²⁹⁾.

28) ① 『三國志』卷二十一「魏書王粲傳阮籍」, 「籍少時嘗遊蘇門山, 蘇門山有隱者, 莫知名姓, 有竹實數斛, 白杵而已。籍從之, 與談太古無為之道, 及論五帝三王之義, 蘇門生蕭然曾不經聽。籍乃對之長嘯, 清韻響亮, 蘇門生迫爾而笑。籍既降, 蘇門生亦嘯, 若鸞鳳之音焉。」 ② 『世說新語』「棲逸」, 「阮步兵嘯, 聞數百步。蘇門山中, 忽有真人, 樵伐者咸共傳說。阮籍往觀, 見其人擁却巖側。籍登嶺就之, 箕踞相對。籍商略終古, 上陳黃、農玄寂之道, 下考三代盛德之美, 以問之, 佗然不應。復敘有為之教, 棲神導氣之術以觀之, 彼猶如前, 凝矚不轉。籍因對之長嘯。良久, 乃笑曰: 「可更作。」籍復嘯。意盡, 退, 還半嶺許, 聞上{口+僞}然有聲, 如數部鼓吹, 林谷傳響。顧看, 迺向人嘯也。」 ③ 『晉書』卷四十九「阮籍列傳」, 「籍嘗於蘇門山遇孫登, 與商略終古及栖神導氣之術, 登皆不應, 籍因長嘯而退。至半嶺, 聞有聲若鸞鳳之音, 響于巖谷, 乃登之嘯也。」

29) 이승휴의 불교세계는 居士 불교적 성격을 가지며 儒·佛·道가 한 근원이라는 삼교일원론이라고

이와 같이 이승휴가 한유의 시구를 用事함으로써 표현하고자 했던 뜻은, 한 개인의 정감만을 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과 조정이 모두 고통에 빠져 있는 고려가 처해 있는 상황을 걱정하며, 평화로운 신선세계인 울릉도처럼 되기를 희구하는 우국충정을 읊은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승휴의 「望武陵島行」은 이런 면에서도 악부시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田使君賡和詩」의 해석과 서복전설의 구전성

「望武陵島行」에는 「田使君賡和詩」라는 시가 이어져 있다. 이승휴가 「望武陵島行」을 지은 것에 和韻하여 田使君이라는 사람이 「田使君賡和詩」를 지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승휴와 田使君이라는 사람이 「武陵島(울릉도)」를 바라보고 서로 시를 주고받은 것이다³⁰⁾. 使君이라는 것은, <사또> 정도의 의미를 한문으로 표현한 것이다. 「江陵田使君」이라고 있으니, 「강릉의 전사또」 정도의 의미이리라고 생각된다³¹⁾.

「田使君賡和詩」는, 중국의 『史記』나 도연명의 「桃花源記」, 한유의 「桃源圖」와 같은 것을 典故로 하여, 눈앞에서 보였다 안보였다 하는 울릉도를 묘사하고 있다. 앞에서의 이승휴의 「望武陵島行」과 마찬가지로 「前景後情」의 형태를 하고 있다. 이승휴의 것에서는 5, 7언이 많은 악부체의 형식을 취한 24구의 시였는데, 전문윤의 것은 7언의 형태로서 24구로 이루어져 있다. 필자는 「田使君賡和詩」도 「望武陵島行」이라는 악부체 형식의 시에 화운하는 것이니만큼 그 詩作정신은 동일하다고 본다. 다만, 「田使君賡和詩」에서는, 이승휴의 시에서처럼, 눈앞에 펼쳐지는 단순한 울릉도의 경관을 전반부에서 읊고 나중에 자신의 생각으로 마무리 하는 구조가 아니라, 처음 1,2구는 도입부로서 울릉도의 경관을 묘사한 후, 중반에는 울릉도에 관한 역사적인 사실도 암시하고, 신선세계로서 묘사·동경한 후에 마지막에 자신의 심경을 피력한다는 점이다. 이는 전문윤이 강릉 수령으로서 울릉도에 관한 지식이 구체적으로 있어서 반영된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田使君賡和詩」는 7언의 악부시

한다. 진성규 「이승휴의 불교관」(진단학보, Vol.99, 진단학회, 2005) 참조.

30) 울릉도를 눈앞에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직접 시를 지은 것인지, 시간을 가지고 나중에 주고받은 것인지는 알 수 없다. 賡和는 타인의 詩에 서로 和韻하는 것이다. [段成己, 詩]有酒相獻酬, 有詩互賡和. (『大漢和辭典』)

31) 전문윤은 요전산성농성 7년 후에 종6품인 右正言이 되어 원나라에 간 것을 보면, 이 무렵에는 7품인 受領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안무사는 통상 5, 6품이었다고 한다. 전문윤이 원나라에 간 記事는 『高麗史節要』 卷之十八 「元宗順孝大王」 庚申元年(1260년)九月 조에 「遣右正言田文胤, 如蒙古, 謝賜符印」이라고 보인다.

로 볼 수 있으며, 「詠史樂府」·「遊仙樂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1)鯨海連天又匝地。(2)眼力先窮不見涘。(3)蓬山玉立銀河間。(4)冷與秋色相磨翠。(5)吾聞祖龍遣徐福。(6)遠掇援草神州裏。(7)三千童冠去不還。(8)鮑魚無賴腥風起。(9)又聞舟子入桃源。(10)一出復尋迷所止。(11)好事大守寄南宮。(12)生綃數幅映閑几。(13)丹青摹狀有遺失。(14)樓船駕浪徒勞耳。(15)不如親對眞面目。(16)得盡搜奇窮摘異。(17)安得長翮生我身。(18)忽然飛向峯頭墜。(19)一傾金母九霞觴。(20)乘酣月與群仙戲。(21)神清之洞本不扁。(22)所恨未免人間累。(23)人間行路日漸艱。(24)長把歸心還責己。(「田使君賡和詩」)

(1)동해는 하늘에 닿고 또 땅을 돌렸으니, (2)시력이 먼저 다하여 물가를 보지 못한다. (3)봉래산은 은하수 사이에 구슬처럼 서서, (4)싸늘히 가을빛과 서로 닿아 푸르다. (5)나는 듣건대 조룡이 서복을 보내어, (6)멀리 불로초를 신주 안에서 찾게 하였다. (7)3천명 갓 쓴 동자 떠나가 돌아오지 않았고, (8)절인 생선 무뢰배들이 비린내를 풍겼다. (9)또 듣건대 뱃사공이 도원에 들어갔다가, (10)한 번 나와서는 다시 찾았으나 이를 곳을 잊었네. (11)일 좋아하는 태수는 남궁에 기거했는데, (12)비단 몇 폭을 한산한 안석에 펼쳤네. (13)그림으로 모양을 그렸으나 빠뜨림이 있었고, (14)층루 선박으로 물결을 달렸으나 헛수고였네. (15)직접 진면목을 마주하여 (16)기이함을 다 찾고 이채로움을 끝까지 적취함만 못하네. (17)어찌하면 긴 날개를 내 몸에 나게 하여 (18)홀연히 날아 봉우리 끝에 내릴 수 있을까? (19)한 번 서왕모의 술잔을 기울이며, (20)술 취함을 틔다 달과 여러 신선들과 놀아보세. (21)神清之洞과 같은 신선을 추구하는 곳은 본래 격의가 없는데, (22)한스러운 것은 인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함이네. (23)인간행로는 날마다 점점 험난해 지니, (24)늘 <귀심>이라는 故事로써 약해져 가는 자신을 꾸짖네. (제7구, 제8구, 제21구, 제24구는 필자改譯)

제1구~제4구는, 가물가물한 동해바다(鯨海) 끝에 삼신산 중의 하나인 봉래산(蓬山)이 밤에는 은하수 사이로 우아하게 서 있고 낮에는 차가운 푸른 가을 하늘과 서로 맞닿아 있다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봉래산이라 함은 바로 요전산성에서 자주 목도되는 울릉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봉래산을 <國譯>의 注³²⁾에서는 금강산을 이룬다고 하였으나, 이승휴나 전문윤 당시에 금강산을 <봉래산>이라고 한 근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곳에서도, 이승휴의 <망무릉도행>의 서문에서 밝히듯이 요전산성에서 멀리 바다 건너로 보이는 한 섬이 있었는데 마을 사람에게 의하면 <무릉도>라고 하였고, 그에서 촉발되어 서로 시를 읊고 있는 만큼, 여기서 대상이 되는 것은 울릉도임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눈앞에서 떴다 가라앉았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던 섬은 <蓬山>이며 그것은 다름 아닌 <武陵島>라는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제5구~제8구는, 울릉도민의 성격과 울릉도 역사의 한 단면을, 전문윤이 마을

32) 본고에서 주로 의존하고 있는 <『動安居士集』 진성규 옮김, 2009, 지식의만드는지식>의 注.

에서 들었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경험했을 수도 있는 사실로서 옳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물론 이 구절은 『史記』의 진시황조에 보이는 서복전설이나 「鮑魚腥」典故를 참조한 흔적이 보이지만³³⁾, 「望武陵島行」의 서문에서 보이듯이 마을 노인에게서 무릉도라는 島名을 들어서 알게 된 것으로 보아, 島名을 포함하여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등도 거론되었음은 쉽게 상상이 가는 것이다. 따라서, 「吾聞祖龍...(나는 조룡이 ...했다고 들어 알고 있다)」에서처럼, 「聞」을 사용하였는지도 모른다³⁴⁾. 또, 「聞」은, 단순히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서복일행을 삼신산으로 보냈다는 지식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울릉도로 간 이후의 일들까지도 포함하여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조룡(진시황)이 서복 일행을 「神州(=신선세계)」³⁵⁾로 보내어 불로초를 구해 오도록 하였으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절인 생선 무뢰배들이 비린내를 풍겼다(三千童冠去不還。鮑魚無賴腥風起)」고 하니,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일을 일으켰던 것 같다. 여기서는 당연히 「神州(=신선세계)」는 「武陵島(=蓬山)」를 가리키고 있다. 그 「神州」로 보내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심상치 않은 일을 일으켰다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일까? 이승휴와 전문윤 시대에 울릉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고려사』를 보면, 서기 1246년에 울릉도 按撫使로 史挺純이 임명 (이유 未詳)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이 기사만으로는 울릉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1246년 전후해서 그 밖의 按撫使 과건 기사를 조사해 보면, 그 과건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한다.

- (가) 1012/ 5都護 75도에 按撫使 설치
- (나) 1107/ 각지의 안무사가 백성의 질고를 묻고 수령의 치적을 조사
- (다) 1128/ 거제지역 해적 귀순 분치시켰음을 보고
- (라) 1186/ 탐라 진압 목적으로 임명
- (마) 1202/ 탐라지역 반역자 괴수 처형 보고
- (바) 1217/ 東都(경주)에서 난이 일어나 지역과 연고있는 蔡靖을 임명하여 안정

33) 진시황이 會稽·낭야(琅琊) 등의 바닷가를 순행하다가 죽었을 때, 장자가 아닌 차자인 胡亥에게 황위를 계승하게 하기 위하여 환관 趙高와 승상 李斯가 음모하여 진시황의 죽음을 알리지 않고 서을 咸陽까지 가면서 진시황의 편지를 위조하였다는 故事. 이때 시체 씌는 냈새를 감추기 위해 행렬의 수레마다 1石의 鮑魚(절인생선)를 싣게 했다고 한다.(『史記』卷六「秦始皇本紀」三十七年)

34) 「聞」은 「널리 듣고 알다」라는 뜻을 갖는다.

35) 「神州」는 보통은 「赤山神州」를 典故로 하여 중국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지만, 이 경우에는 그렇게 해석해서는 뜻이 성립하지 않는다. 서복전설에서는 중국 내에 보내진 것이 아니라 동해의 「삼신산」으로 보내진 것으로 되어 있으니, 이 경우에도 「신선세계」로 보아야 맞을 것 같다. 참고로, 고려의 시문을 보면 神州는 중국 외에도 고려 도읍지 개경에서 가까운 지경을 가리키는 예도 많이 보인다.

(사) 1246/ 울릉도 안무사 史挺純 임명 (이유 未詳)

(아) 1269/ 北界의 반란 진압 목적으로 파견

(자) 1271/ 몽고장군이 남쪽에서 자국군의 약탈 진압 목적으로 파견요청

(차) 1272/ 김해에 들어온 왜선을 몰래 한국조치, 홍다구가 국문·처형

(카) 1272/ 경상도에 삼별초 침입, 방어

(『高麗史』·『高麗史節要』에서 발췌 정리한 것임)

상기의 예를 보면, 대부분 섬 지역이나 변방에서 해적, 반란, 약탈 사건 등이 일어나서 그 진압을 목적으로 파견된 예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 1246년에 울릉도로 안무사 사정순이 파견 된 것은 그곳에서 반란이나 약탈 사건이 일어나 그 진압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246년은 <망부릉도><전군사갱화시>가 제작되었던 1253년으로부터 7년 전인 해이다. 당시의 전문윤의 연령이나 강릉 수령직의 직무기간을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7년씩이나 강릉지방 수령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³⁶⁾, 울릉도에 관한 일은 부임한 후에 그 지방 사람들로 부터 들어서 알았을 것이다. 고려조정에게 있어서 관리대상 지역인 울릉도에 관해서는 그 지방 수령으로서는 당연히 여러모로 조사를 하였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울릉도인이 서복일행의 후손이라든지, 생선 비린내 풍긴 일이라든지 들었을 것이다.

제9구~제12구는, 「桃花源記」 「桃源圖」를典故로 한 用事이다. 앞의 2구는 「桃花源記」를 전고로 한 것이고, 뒤의 2구는 「桃源圖」를 전고로 한 것이다. 그런데, 뒤의 2구는, 무릉태수가 盧汀(「桃源圖」의 작자인 한유와 친분 관계)에게 글을 보내어 盧汀이 그에 화답하여 글을 지었다는 「桃源圖」의 내용을 답습하고 있지만(사실은 무릉태수가 노정에게 글을 보낼 리가 없는 것인데, 무릉도원의 이야기를 그린 그림에 노정이 글을 붙였다는 사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임), 여기서는 전문윤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일 좋아하는 태수인 전문윤 자신이 요전산성 남쪽에 기거³⁷⁾하며 안석(几)에 비단을 펼쳐 누군가(아마도 지역민으로서 어로활동으로 울릉도 혹은 근처에 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무릉도」를 그려보게 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일은 현재의 일이거나 혹은 과거 울릉도민에게 일 있었을 때에 지역수령인 전문윤이 그 울릉도의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민에게 지도를 그려보게 한 일을 가리키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무튼 이 부분에서는 울릉도를 秦나

36) 수령의 경우는 3년, 안찰사의 경우는 6개월 임기가 원칙이었다 한다. 박종진, 「고려시기 안찰사의 기능과 위상」(동방학지, Vol.122,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3) / 이혜옥, 「고려시대의 수령제도연구」(이대사원, Vol.21, 이화여자대학교 사학회, 1985) 참조.

37) 「桃源圖」에서의 「寄南宮」은 무릉태수가 南宮선생(盧汀)에게 그림을 보냈다(寄)의 의미이었는데, 여기서는 「寄」를 「부치다, 보내다」가 아니라, 「기거하다. 얹혀살다」로 보았다.

라 사람들이 「避地」했다고 전해지는 무릉도원으로 인식하고 있다³⁸⁾. 「又聞...(또한 ...라고 들어 알고 있다)」라 하여 이 이야기도 동해안 일대에서 구전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제13구 ~ 제20구는, 그렇게 그림을 그려보게 하였으나, 기억에 의존하는 만큼 빠뜨린 부분도 있어서, 배로 찾아가 보았으나 헛수고였다. 직접 가서 진면목을 대해 보는 것만 못하다. 고로, 신선세계인 울릉도에 직접 가서 신선들과 놀고 싶다는 내용이다. 「全景後情」 중에 「後情」으로 접어드는 대목이며, 「遊仙詩」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제21구~제24구는 전문윤이 요전산성에 농성하며 몽고의 4차 침입에 대응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울릉도를 바라보며 그 지역 출신으로서 몇 명 안되는 지식인인 이승휴와 울릉도를 소재로 하여 시를 창화하는 중에, 자신의 심경을 잘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울릉도와 같은 신선의 세계는 빗장이 없다. 그러나 자신은 아직 인간세계의 굴레(累; 가족·민심)에 대한 근심, 수령으로서의 지역방위에 대한 자신감 상실이나 공포심 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 그리고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더욱 어려워져만 간다³⁹⁾. 그러나, 전문윤은 약해지는 자신을 <歸心>의 故事를 가지고 꾸짖어 일깨운다. 즉, 여기에서 몽고병을 방어하지 못하면, 李陵(?~B.C.74)이 흉노에게 사로잡혀 오랑캐를 섬기는 수모를 겪은 일과 같은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약해지는 자신을 더욱 채찍질 하는 것이다⁴⁰⁾.

38) 울릉도를 「무릉도」라 칭하는 것은 이 곳이 초전이다. 아마도 이 대목과 같은 무릉도원과 같은 인식이 있어서 「우릉」과 비슷한 발음이고 선계의식을 잘 나타내는 「무릉도」라 칭한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39) 「人間行路難」이라는 句를 사용한 시에는 杜甫의 「將赴成都草堂途中有作，先寄嚴鄭公，五首之四」라는 시가 있다. 또, 「行路難」이라는 시구를 사용한 시는 그 이전에도 많아서 남북조 시대 남조(宋)의 鮑照의 예를 시초로 하여 李白, 張籍 등 많은 시인이 사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世路艱難과 離別悲傷」의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樂府解題』). 두보의 경우도 다른 시의 경우에서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겠는데, 특히 「世路艱難」의 뜻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結句에 「三年奔走空皮骨，信有人間行路難. (삼년간 분주히 다녀 헛되이 피골만 상겹/ 실로 인생에는 행로난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있다. 거의 평생을 떠돌아다니거나 난을 피해 다니는 고난의 인생을 살은 두보가 자신의 후원자인 嚴武(節度使)를 의지해 成都(사천성)를 찾았을 때 엄무에게 보낸 것으로, 지금 전문윤을 비롯해 요전산성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의 처지를 대변하는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두보와 같은 변변한 벼슬도 없는 힘없는 백성들의 「行路難」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杜甫의 일생에 관해서는 손팔주의 「두보의 생애와 시론」(수련어문논집, Vol.22, 수련어문학회, 1996) 참조.

40) 여기서의 「歸心」은 「婦心切大刀」·「大刀頭」와 같은 典故를 用事하고 있는 것이다. 즉, 「李陵의 故事」를 典故로 삼고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은 『漢書』卷五十四, 「李廣蘇建傳」第二十四에 보인다. 「昭帝立，大將軍霍光、左將軍上官桀輔政，素與陵善，遣陵故人隴西任立政等三人俱至匈奴招陵。立政等至，單于置酒賜漢使者，李陵、衛律皆侍坐。立政等見陵，未得私語，即目視陵，而數數自循其刀環，握其足，陰諭之，言可還歸漢也。」이 記事의 앞뒤를 포함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릉은 한무제 때의 장군으로 흉노와의 전투에서 포위되어 사로잡히게 되었는데, 흉노의 선

요약해 보면, 울릉도는 동쪽 바다의 끝 보일 듯 말듯 아득한 곳에 있는 봉래산이다. 그리고, 진시황이 불사초를 구하기 위해 파견하였던 서복과 동남녀 일행 혹은 그와 같은 避地民이 돌아가지 않고 남은 곳이다. 그 서복 일행의 후손(혹은 피지민의 후손)인 울릉도인은 최근 언제인가 반란이라도 일으켜서 본토와 문제를 야기한 적이 있다. 또한, 울릉도(울릉도인)는 도화원기에서 이야기되는 무릉도원과 같은 이상세계이다. 그러나 그곳에는 세상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곳으로 가본 사람이 극소수이다. 간혹 어업으로 그곳에 갔거나 혹은 가까이까지 가서 본 사람에게 이야기를 듣거나 그림으로 설명을 듣지만 직접 가본만 못하다. 인간세계의 굴레(累; 가족에 대한 근심, 수령으로서의 지역방위에 대한 자신감 상실이나 공포심 등)에서 벗어나 울릉도와 같은 미지의 세계(신선세계, 이상향)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으로 약해져 간다.

울릉도는 현실세계에서는 한때 생선비린내 풍기는 고약한 곳이기도 했지만, 그동안 교류가 끊겨 미지의 세계로 남아 있는 동경의 세계이다.

울릉도인이 서복일행의 후손, 혹은 진나라 폭정을 피해 숨은 피지민의 후손이라는 인식은, 전문윤 혼자만의 생각인 것인가? 필자는 이러한 <울릉도인 = 서복일행 후손, 피지민 후손>이라는 인식은, 강릉, 삼척, 울진의 동해안 일대에 비록 소수일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규모의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현재에 문자로 수집, 정착된 口傳은 발견되지 않지만, 후대의 한시문에서는 그 흔적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다.

4. 서복관련 한시와 구전성

「田使君賡和詩」에서 울릉도를 바라보며 서복일행과 관련지은 인식을 보였는데, 그러한 인식은 개인적인 것인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고려 말에서 조선중엽까지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보았다. 그 결과로, 동해안 일대에서 울릉도를 바라보며 지은 시는 여러 편 있었고, 몇 편인가는 울릉도와 서복일행과 관련짓는 인식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전문윤 시대보다 거의 100년 후의 것(1370년 전후)이 2수 있었고, 조선 초엽

우(單于)는 그를 고문으로 우대하였다. 한무제는 이를 알고 그의 가족을 誅殺하였다. 昭帝 때, 이릉을 데려오도록 이릉의 친구인 任立政 등이 파견되었다. 임입정은 酒宴 자리에서 남의 눈을 피해 刀環(칼자루 고리)을 여러 번(數數) 쓰다듬어(循),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은밀히 신호하였다. 그러나, 이릉은 장부가 두 번 주군을 배신하는 굴욕을 당할 수는 없다고 하며 응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데, 여기에서 임입정이 刀環(칼자루 고리)을 쓰다듬은 것은 고리(環)와 돌아가다(還)의 발음이 같으므로 고향으로「돌아가자」고 신호한 것이다. 이 고사로부터 「婦心切大刀」·「大刀頭」와 같은典故가 생겨났다. 「婦心切大刀」의 「切」도 「문지르다」의 뜻이 있으니, 「돌아가자고 大刀를 문지르」 것이다.

의 것(1460년대 전후)이 4수, 조선 중엽(1530년경과 1608년경)이 3편 보였다.

가) 陂麥翻風穀雨前。田頭伐鼓禱豐年。蔚陵信美洪濤惡。坐愛茅簷橫白煙 (題臨漪驛，圓齋先生文稿卷之上)

(보리밭에 바람물결, 곡우전이오/ 논가에서는 북치며 풍년을 기원하네. 울릉도는 아름답고 큰 파도는 싫구나. 띠지봉에 흰연기 옆으로 누운 풍광을 보고 싶으니.)

<필자 역>

나) 數點稀微浩渺間。人言此是蔚陵山。若爲駕彼青田鶴。橫截滄溟往復還。

(登知峴望蔚陵，耘谷行錄卷之一)

(몇개인가의 점이 아스라히 보이는데/ 그곳이 울릉도라고 사람들이 말하네. 만약 靑田의 학을 타기만 하면/푸른 바다 가로질러 다녀오고 싶구나.)

<필자 역>

다) 于山一點滄溟中。若非羽人那可到

(한 점의 우산도가 큰 바다 한가운데 있으니/ 날개 달린 사람 아니면 어찌 이를 수 있으랴)

.....(중략)...

至今怪殺異斯夫。木獅載入羅威稜

(지금까지도 괴이한 것은 이사부란 사람이 / 나무 사자 싣고 들어가 위엄을 떨침일세)

....(중략)...

繼羅千載不復通。生死自作桃源民

(신라 이후론 천 년 동안 다시 통하지 못하여/ 무릉 도원 백성처럼 생사를 제멋대로 하니)

....(중략)...

蓬瀛咫尺招群仙。啖棗絕嶼同聊浪 (羽陵行。送金進士尙簡之蔚珍。時進士之父博。爲縣令，佔畢齋集卷之五)

(지척인 봉래 영주에서 못 신선들을 불러/ 대추 먹으며 외딴 섬에서 마음껏 노닐어볼꼬)

가)는, 圓齋 鄭樞 (1333년 ~ 1382년)가 울진현 평해의 망진정 근처에서 울릉도를 보며 지은 시이다. 鄭樞는 1366년 신돈을 탄핵하다가 동래현령으로 좌천되었다가 5년 후에 신돈이 죽자 소환된 적이 있는데⁴¹⁾, 아마도 이 무렵에 평해 바닷가에서 읊은 것으로 추정된다. 섬 자체는 아름답게(信美) 보이지만 큰 파도(洪濤)로 인해 사람의 흔적을 볼 수 없음을 아쉬워하는 내용으로 이해된다. 호기심의 대상인 미지의 세계로서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서의 인식도 보여주고는 있다. 「띠지봉에 흰연기 옆으로 누운 풍

41) 高麗史·高麗史節要 참조.

광을 보고 싶으니」라고 읊고 있는 것은, 울릉도라는 섬에 관한 이야기를 사람 들로부터 들어서 누군가 살고 있다는 인식은 갖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나)는 耘谷 元天錫(1330년 ~ ?)이 40세에 寧海府를 여행하던 때에, 蔚珍에서 묵고, 臨瀾亭을 구경한 뒤 知峴에 올라 울릉도를 바라보며 지은 시이다⁴²⁾. 울릉도가 희미하게 점으로 보이는데 지역민(人)이 울릉도라고 설명해 준다. 그러나, 본 시에서는 더 이상의 울릉도에 관한 인식을 보여주지는 않고, 다만, 용이 하게 다가갈 수 없는 곳이기, 신선이 탄다는 「청전학」을 타고 가 보고 싶다는 동경을 보이고 있다. 이는 「유선시」적 성격을 보이며 울릉도를 신선이 사는 미지의 세계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본다.

다)는 「羽陵行」이라 題하는 「영사악부」와 「유선악부」의 성격을 갖는 악부시이다. 지면 관계상, 부분만 제시하였는데, 이사부의 정벌 이야기라든지, 신라 이후 천년이나 통교가 없었다든지 하는 것은 울릉도에 관한 역사적 인식에 관한 것으로 「영사악부」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또, 날개 달린 사람이 아니면 갈 수 없다든지, 못신선들과 대추 먹으며 놀고 싶은 곳이라든지 하는 것은 「유선시」적인 것이다. 이 시를 지은 金宗直(1431~1492)은 울릉도를 앞에 두고 지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김종직은 1466년 7월, 會寧府使 李施愛가 난을 일으키자 36세의 나이에 節度使의 명을 받들어 징집을 목적으로 寧海府로 가서 觀魚臺 등을 유람한 적이 있는데⁴³⁾, 이때에 울릉도에 관한 지식을 얻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지식을 바탕으로 金尙簡이라는 사람이 울진에 갈 때, 이 「우릉행」을 지어 송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여기에 보이는 울릉도 인식은, 문헌, 구전 등을 망라한 지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울릉도인들이 바깥 세상과 단절되어 바깥세상과는 달리 생사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生死自作桃源民」이라는 인식이다. 이것은, 「田使君廣和詩」에서, 울릉도를 「무릉도원」으로 인식하던 것과 맥을 같이 하는 인식이다.

위의 김종직과 같은 시기의 것으로, 매월당 김시습(1435~1493)의 시가 보이는데, 다음과 같다.

가) 萬里扶桑望眼賒。蒼波淼淼蘸朝霞。秦皇謾愛三山藥。漢使空浮八月槎。白浪滔天鼇背拊。紅雲插地蜃樓斜。從今陡覺仙遊壯。杯視東溟碧海涯。(鏡浦臺, 梅月堂詩集卷之十, 遊關東錄)

(만리나 부상을 바라보는 눈길은 먼데/ 한없는 푸른 물결은 아침노을에 잠겨있네. 진시황은 부질없이 삼신산약 좋아하고/ 漢使는 헛되이 팔월에 뗏목

42) 申景澈, 「운곡선생의 생애와 유적」(운곡학회, 2007. 11).

43) 『점필재집』의 연보.

떠있네. 흰 물결은 하늘 넘칠 듯 鼈背를 치는데/ 붉은 구름 땅에 꽃힘은 신
기루가 비김이라. 이제 홀연히 선유가 장함을 깨달아/ 동해의 푸른 바다가
술잔처럼 보이누나.) <필자 역>

나) 人生但百歲。壽夭且在天。焉能人世間。盡得彭祖年。三山誰所見。仙餌誰所
傳。奈何一匹夫。欺詐萬乘主。一舸入東海。漂渺無人觀。三千童男女。呱呱
啼且隨。遂使千載下。緬懷良可悲。(嘲徐市, 梅月堂詩集卷之十, 遊關東錄)
(인생은 기껏해야 백년이고 / 장수와 단명은 하늘에 달렸거늘. 어찌 인간
세상에서 / 팽조 같은 수명을 누릴 수 있으리. 누가 三山을 보았다더냐 /
누가 仙餌를 전한다더냐. 어찌 일개 필부가 / 만승국의 군주를 속였던가. 큰
배 한척으로 동해로 들었으나 / 그 이후로 끝없이 넓은 바다에서 본 사람
이 없어라. 삼천 동남동녀가 / 앵앵 울며 그 뒤를 따라 갔는데. 천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 생각하니 참으로 불쌍하도다.)

<필자 역>

다) 玄洲蓬島飽曾聞。思欲仙遊謝世氛。人說羽陵堪避隱。登高試望渺如雲。(望
羽陵島, 梅月堂詩集卷之十二, 遊金鰲錄)
(玄洲·蓬島 이야기는 이제껏 질릴 만큼 들었는데/ 世氛을 물리치고 신선처럼
놀고 싶구나. 사람들이 避隱하기에 좋은 우렁이라 하여 / 높이 올라 멀리
바라보니(試望)하니 바다 끝에 구름과 같네.)

<필자 역>

가) 「鏡浦臺」와 나) 「嘲徐市」는 「遊關東錄」에 실려있는 것으로, 여기에
실려 있는 시들은 김시습이 1455년 세조의 왕위찬탈을 보고, 방랑을 떠나 관서
지방을 여행한 후, 1458년 (24세)부터 1460년(26세)까지 약 2년간 관동지방을
여행하였는데, 그 여행 과정에서 지은 것들을 모은 것이다⁴⁴⁾. 그리고, 다) 「望
羽陵島」는 「遊金鰲錄」에 수록된 것으로 김시습이 10년간 관서, 관동 등을
떠돌다가 31세때인 1465년 경주의 금오산에 정착하여 7년간 머물렀던 시기에
제작된 시이다. 「遊金鰲錄」은 시의 주된 배경이 경주이지만, 위쪽으로는 울
진과 정선을 포괄하고 아래로는 울산까지 연결된다⁴⁵⁾. 그러므로, 위의 시 3편
은 남으로는 울진, 북으로는 강릉의 경포대를 잇는 선상에 있는 바닷가에서 동
해·울릉도를 바라보며 읊은 시라고 볼 수 있다.

가)의 장소는 「아침 노을의 경포대」인데, 동해바다에서 신선세계의 기운을
감취하며 옛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여 방사를 보낸 일이나 한무제가 서역으
로 장건을 파견한 일 등을 떠올리고 있다. 또, 나)는 어느 곳인지 확실한 장소
는 알 수 없지만, 강릉에서 금강산으로 올라가는 어느 해안가에서 느낀 정취를
 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詩意는, 「군주를 속여서까지 선약을 찾아 있지도

44) 박영주, 「매월당 시에 형상화된 관동」(도남학보, Vol.18,도남학회,2000) 참조.

45) 강석근, 「매월당 김시습과 경주, 유금오록을 중심으로」(온지논총, Vol.23,온지학회,2009) 참조.

않은 삼신산으로 떠난 후 돌아오지 않는 서복의 어리석음과 그를 좇은 삼천명의 동남동녀의 가없음」이다. 가)와 나)를 비롯한 그 밖의 많은 시를 보면 강릉 근방의 해안가 지방에는 진시황과 서복일행에 관한 정취를 읊고 있다. 이는 단순히 관동지방을 여행하며 읊은 문인들의 개인 취향이 아니라 그 지방 사람들 사이에 이야기되고 있는 「구전」을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다)에서와 같이 「울진·삼척」지방의 해안가에서 울릉도를 바라본 시에서는, 서복전설의 구전성이 강하게 느껴짐을 알 수 있다.

다) 「望鬱陵島」의 詩意는, 「신선이 사는 곳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왔고, 그러한 곳에 살고자 동경하는데, 울진 지역사람들이 울릉도를 추천하였다.」는 것이다. 다) 「望鬱陵島」에서는, 김시습이 경주에 7년간 머무르는 동안에, 어느 때인가 울진 근방까지 왔다가 울릉도를 바라보고 있자니, 그 지방 사람(들)⁴⁶⁾이 「避隱」하기에는 울릉도가 뛰어나다(堪)고 말(說)한 모양이다. 김시습이 신선세계(玄洲蓬島)에 관해서는 익히 들어 왔고, 세상일 다 버리고 그러한 곳에 살고 싶다(仙遊, 避隱)고 하니, 지역민이 그에 적합한 곳이 울릉도라고 한 것이니, 바로 울릉도가 玄洲蓬島와 같은 신선세계라는 말이 되는 것이다. 김시습 자신이 울릉도를 그러한 신선세계로 인식한 것 같지는 않으나, 적어도 김시습이 그러한 선계를 추구함을 알고, 적합지로서 울릉도를 적시한 것은 그 지역민의 울릉도에 대한 선계의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시대는 김시습보다 훨씬 후대로 내려오지만, 울릉도와 서복전설과의 연계와 그 구전성이 강하게 느껴지는 2편의 시가 있다.

가) 積海長天縹緲間。分明一點似彈丸。林泉土石千年勝。日月風煙百代間。王母來時金鼎熱。瀛洲深處玉膏寒。何緣得遂乘桴計。採藥茲山永不還。蒼海微茫望眼昏。薄雲爲崇蔽天根。憑誰學得飛昇術。直跨仙山訪羨門。(蔚珍路上。望鬱陵島。東關錄, 漁村集卷之四)

(바다에 포개진 높고 먼 하늘이 아득한 사이로/ 분명하게 한 개 점이 탄환과 같구나. 숲, 샘, 땅, 돌이 천년의 경승지이고/ 해, 달, 바람, 안개가 백대 동안이나 이어졌네. 서왕모가 올 때는 金鼎이 뜨거웠는데/ 瀛洲 깊은 곳의 (옛날 黃帝가 상복했다는)玉膏는 차네. 어찌하면 뗏목을 탈 계책을 얻겠는가/ 약초 따러 이 산(울릉도)으로 가서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네. 창해가 희미하여 흐린 눈으로 바라보니/ 엷은 구름이 하늘 끝 높이 덮이었는데. 누구에게 하늘 나는 법을 배워/ 이대로 仙山으로 넘어가 羨門(신선)을 찾을까.)

<필자 역>

나) ① 玉兔金鳥不暫閑。安期海上閱人間。秦童去後無消息。萬古雲濤一抹山。(召公臺。望鬱陵島。二首, 九畹先生集卷之一)

46) 시에서는 「人說」이라 하였는데, 「人」은 그 지방 사람으로 추측된다.

(옥토끼·금까마귀가 잠시도 한가한 틈이 없는데(세월은 빨리도 흘렀고)/
安期生은 바다 위에서 인간을 모았네. 秦童은 떠난 후 소식이 없고/ 오랜
세월 수평선의 파도 저 멀리에 한 점의 산이 있네.)

② 雲山千疊隔中州。滄海浮空靜不流。今日召公臺上望。蓬萊咫尺使人愁。
(구름과 산이 겹겹이 중원(조선) 땅을 격하였는데/ 창해가 공중에 떠서 조
용히 흐르지 않는다. 오늘 소공대에 올라 바라보니/ 봉래가 지척인데 使人
은 수심에 차네.)

<필자 역>

가) 「蔚珍路上, 望鬱陵島」는 『東關錄』에 실려 있는 시인데, 『東關錄』은
漁村 沈彦光(1487년- 1540년)이 44세에 강원도 관찰사를 부임했을 때의 시를
수록하고 있다. 漁村 沈彦光은 삼척 출신인데⁴⁷⁾, 아마도 강원도 관찰사 당시에
울진 어느 바닷가에서 울릉도를 바라보며 지은 시인 것 같다. 詩意는, 「울
릉도는 천년의 경승지이고, 백대나 이어지는 선계이다. 그곳에 가기가 용이하
지 않으니 飛昇術이라도 배워서 찾아가 보고 싶다」이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
은, 제8·9句의 「何緣得遂乘桴計。採藥茲山永不還。(어찌하면 뗏목을 탈 계책
을 얻겠는가/ 약초 따러 이 산(울릉도)으로 가서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네.)」
이다. 이 두 句는 서복 일행이 삼신산으로 약초를 캐러 가서 돌아오지 않은 사
실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가기도 어렵고 한번 가면 돌아오기도
어려운 곳이라는 의미이다. 작자는 서복일행이 약 캐러 가서 영원히 돌아오지
않은 곳을 분명하게 「茲山(이 산)」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울릉도를 바라보며
「茲山(이 산)」이라 하고 「약 캐러 (採藥)」가서, 「영원히 돌아오지(永不
還)」않은 것은, 다름 아닌 서복일행이 울릉도에 가서 돌아오지 않은 것이다.
沈彦光은 20살 넘도록 삼척 지방에 있었으니, 그 지방에 전승되는 서복과 울릉
도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자연스럽게 분명하게 지칭하며 시 속에 반영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의 「召公臺, 望鬱陵島」 2首는 서울 출신인 九畹 李春元(1571-1634)이
짧은 동안 동래부사(37세)와 강원도 관찰사(38세)로 부임했을 때에, 울진 지역
을 여행하며 읊은 시로 보인다⁴⁸⁾. ①의 詩意는, 「울릉도는 安期生이 사는 봉
래산인데, 진나라 동남동녀는 그곳으로 간 후 소식이 없다. 울릉도는 오랜 세
월 변함없이 저 멀리 수평선에 점으로 있다」이다. 안기생이 진시황에게 실망
하여 하사받은 금은보화를 다 버리고 어디론가 떠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만나고 싶으면 봉래로 찾아오라고 했다는 설화⁴⁹⁾와 동해 삼신산으로 선약을

47) 沈彦光의 일생에 관해서는, 김은정의 「어촌 심언광의 생애와 시세계」(한국한시작가연구, Vol.5, 한국한시학회, 2000) 참고.

48) 李春元에 관해서는 『九畹先生集』의 行狀(尹舜舉 撰), 神道碑銘(金尚憲 撰), 朝鮮王朝實錄 등 참조.
49) 沢田瑞穂訳, 『列仙傳』 「安期先生」(平凡社) 참조.

찾아 떠나서 돌아오지 않았다는 서복전설을 한곳에 묶어 읊고 있는 것이다. 소공대로부터 바라보이는 동해에서 안기생이 사람을 모은다⁵⁰⁾고 하고 서복일행이 그곳을 추종하여 떠나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해에 오랜 세월 한 點(一抹山)으로 있는 울릉도는 다름 아닌 蓬萊라는 것이다.

②의 詩意는, 「소공대에 올라 바라보는 울릉도(봉래)는 지척에 있는데 물결은 험하고 話者는 수심에 차있다」이다. 여기서 작자는 바다를 격해 있는 울릉도를 「蓬萊咫尺」이라고 하여 울릉도를 분명하게 「봉래」라고 지칭하여 아주 가까이에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물론 나)의 시에서는 그 지역민에게서 들었다는 뉘앙스는 보이지 않지만, 서울 출신의 이춘원이 짧은 관찰사 생활에서 갑작스럽게 울릉도를 읊은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당연히 그곳 관찰사로서 그 지역 각지에 관해 관심을 가져야 도리일 것이고, 그러한 관심을 충족하는 방법에는 그 지역민에게 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일 것이다. 울릉도에 관해서도 사전에 구전되어 오는 일을 포함하여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던 차에, 위와 같은 시를 읊을 때에 그것이 반영되었을 것임은 용이하게 추측할 수 있다.

모두 6인이 읊은 9수의 울릉도 관련 한시를 분석해 보았는데, 서복과 관련지어 그 특징을 표로 작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시기	장소	신분 및 읊은 환경		서복관련 내용
1371년경	평해 바닷가	동래현령	지역민전문추정	없음(미지의세계·사랍거주)
1369년경	울진 지현(고개)	여행	지역민전문	없음(가보고 싶은 곳)
1466년경	울진 바닷가	공무(징집)·여행	지역민전문추정·문헌	없음(무릉도원 같은 곳)
1460년경	경포대	여행	지역민전문추정	진시황 방사 보낸 곳
1460년경	경포대 근방 바닷가	여행	지역민전문추정	어리석은 서복·가없는 동남동녀
1470년경	울진 근방 바닷가	여행	지역민전문	없음(피은지, 선계)
1530년경	울진 바닷가 노상	지역출신·관찰사	지역출신	약 캐러 간 서복일행 돌아오지 않음
1608년경	울진 바닷가	관찰사	지역민전문추정	동남동녀 봉래(울릉도)로 떠난 후 돌아오지 않음
1608년경	소공대(삼척과 울진 사이)	관찰사	지역민전문추정	없음(울릉도=봉래)

표(1) 울릉도 관련 한시의 특징

50) 필자는, 「鬪」을 「모으다」로 보았다.

표(1)에서, 울릉도를 바라보고 시를 읊은 지역은 울진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이 눈에 띈다. 울릉도가 지리적으로도 울진에서 가깝고 예부터 교류하기에도 용이한 입지 조건이기 때문에, 자연히 울진 지역에 울릉도에 관한 전승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울릉도에 관한 정보를 지역민에게서 들은 것은 주로 여행객이었고, 지역 관찰사의 경우에는 지역민에게서 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적으로 울릉도와 서북전설과 결부지은 시는 많지는 않지만, 16세기경의 울진지역 지역민 사이에는 울릉도로 서북 일행이 건너갔다고 하는 전승이 있었음은 확인 할 수 있다. 부연할 것은, 경포대 지역에서는 울릉도는 아니지만, 동해바로 서북일행이 떠나갔다가 진시황이 이 지역으로 방사를 파견하였다고 하는 인식이 보인다는 점이다.

결 론

본고의 첫째 목적은, 「田使君廣和詩」에 보이는 서북전설의 口傳적 성격을 규명하는 일이다. 그를 위해서는 본 시의 정확한 해석이 선행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었다. 짧은 시 안에 짧은 몇 마디의 서북관련 기사가 박혀있는 것을 캐어내서 그 의미를 천착해 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선은, 앞에 전제되어 있는 이승휴의 「望武陵島行」의 詩體와 시의 해석이 선결되어야 했다. 전형적인 前景後情의 구조를 보이는데, 그 제16,17,18구의 해석이 관건이었다. 이것은, 또, 한유의 시를 典故로 用事하고 있으므로, 전고인 「曲江의 연꽃行 화답시」를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한유의 시도 많은 典故를 用事하고 있으므로, 典故의 典故를 추적하여 그 시의 복잡한 이미지를 읽어내는 일은 어려운 작업이었다. 아무튼, 한유의 시, 「上界眞人足官府, 豈如散仙鞭笞鸞鳳終日相追陪」에서, 「上界眞人」은 조정에 포진해 있는 불교·도교 숭상파(한유의 政敵)이었음을 알 수 있었고, 「鞭笞鸞鳳」의 의미도 그들 불교·도교 숭상파들을 꾸짖는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유는, 「曲江의 연꽃行 화답시」에서, 불안한 현재의 정국이 유교사상을 근본이념으로 하여 안정되고, 왕권이 확립되기를 기원하는 우국충정의 심정을 토로한 것이다. 이승휴가 이러한 한유의 시를 用事함에 있어서 의도하는 바는, 한유의 우국충정을 도입하면서도 난국타개책에 있어서는 현재의 고려정부가 행하고 있는 「佛力」에 의존하는 사상적 방향을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승휴의 「望武陵島行」은 단순히 눈앞의 울릉도의 아름다움이나 신선세계로서의 동경만을 읊은 것이 아니라 현재의 국난을 걱정하며 빨리 외적이 물러가서 태평성세를 회복할 것을 회구하는 우국충정의

현실비판적인 안목의 시임을 알 수 있었다.

이어서, 전문윤의 「田使君賡和詩」도 7언의 악부체로 볼 수 있었다. 이승휴나 전문윤이 악부체를 표방한 것은 「采詩」적인 성격을 담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두 시 모두 울릉도와 관련해서는 그 지역의 口傳을 기본적으로 담고 있다고 본다. 그와 관련하여, 「田使君賡和詩」의 「聞(들어서 알고 있다)」이 가리키는 범위도, 서복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삼신산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은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일행이 울릉도(神州=蓬山)로 가서, 후에 문제를 일으켰다는 내용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본다. 즉, 삼척(울진 포함)지방에는 「울릉도인은 서복 일행의 후예이다」라는 口傳이 있었는데, 그것을 전문윤이 시에 담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밖에도 삼척지방(울진포함)의 「울릉도인=서복일행후예」라는 口傳이 있는가를 밝히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설화나 그 지역 관련의 한시문 등의 문헌을 조사하여야 하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헌설화는 발견할 수 없었고, 울진-경포대 간을 잇는 동해안에서 울릉도를 바라보고 지은 한시는 얼마간 있었다. 그것들을 해석하고 분석해 보니, 비록 전문윤으로부터 시대적으로 후대 이기는 하였지만, 주로 울진지역의 지역민 사이에는 「울릉도인=서복일행후예」라는 口傳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울진이나 삼척은 울릉도와 가깝고 실제 바라다 보이기도 하는 곳으로서 서복전설이 구전되면서, 그곳을 여행하거나 부임해 온 관리는 지역민으로부터 그 구전되는 전설을 듣고 시로 읊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전문윤의 시 「田使君賡和詩」의 서복전설도 그 지역의 구전을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동해안 지역의 서복전설을 규명함에 있어서 향후의 과제는, 동해안 지역을 소재로 한 진시황·불로초 관련 설화와 한시에 있어서의 진시황 관련시와 신라 四仙 관련시와의 관련성 규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필자의 당면과제와 떨어져 있고 능력을 넘는 분야이다.

또한, 「望武陵島行」·「田使君賡和詩」에서의 서복전설과 이후의 고려말기 한시문에 다수 보이는 서복전설과의 의미 관계에 관해서는 별고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参考文献】

- 『高麗史節要』 한국고전번역원 사이트.
최태룡·손영중 번역(1998) 『北韓國譯高麗史』, 도서출판 신서원.
貝塚茂樹 『中國の歴史』 中, 岩波新書.
金學主譯著 『新完譯 古文眞寶』 後集, 明文堂.
澤田瑞穂譯 『列仙傳』 「安期先生」, 平凡社.
中華書局 編 『漢書』 .
福永光司外譯(2004) 『老子 莊子』, 筑摩書房.
삼척시편(1995) 『三陟市誌』 .
盧啓鉉 『麗蒙外交史』, 甲寅出版社
진성규 율김(2009) 『動安居士集』, 지식을만드는지식.
강석근(2009) 「매월당 김시습과 경주, 유금오록을 중심으로」, 온지논총, Vol.23, 온지학회.
김근태(1989) 「한국 악부시 연구」, 국어교육 Vol.65, 한국어교육학회(구-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김은정(2000) 「어촌 심언광의 생애와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Vol.5, 한국한시학회.
김태희(2005) 「한유와 맹교시의 사실성고찰」, 중국연구 Vol.36,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 연구센터 중국연구소.
安大會(1997) 「한국 악부시의 장르적 성격」, 한국시가연구, Vol.1, 한국시가학회.
金卿東(1991) 「張籍生平事蹟考」, 중국문학연구 Vol.9, 한국중문학회.
申景澈(2007. 11) 「운곡선생의 생애와 유적」, 운곡학회.
박영주(2000) 「매월당 시에 형상화된 관동」, 도남학보Vol.18, 도남학회.
박종진(2003) 「고려시기 안찰사의 기능과 위상」, 동방학지 Vol.122,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변동명(2005) 「이승휴의 생애와 저술」, 진단학보, Vol.99, 진단학회.
손팔주(1996) 「두보의 생애와 시론」, 수련어문논집, Vol.22, 수련어문학회.
李起炫(2000) 「악부시의 범주설정과 유형분류」, 한국시가연구Vol.6, 한국시가학회.
李圭椿(1992.12) 「象村의 歌·行體 漢詩에 대하여」, 語文研究23, 語文研究會.
이혜옥(1985) 「고려시대의 수령제도연구」, 이대사원 Vol.21, 이화여자대학교 사학회.
진성규(2005) 「이승휴의 불교관」, 진단학보Vol.99, 진단학회.
황위주(2007) 「악부시의 개념과 양식적특징」, 선비문화Vol.12, 남명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http://www.itkc.or.kr/>
詩詞典故 <http://cls.hs.yzu.edu.tw/ORIG/>

要 旨

13世紀中頃に作詩された高麗の漢詩文には、三陟の海辺で武陵島(鬱陵島)を眺めて徐福伝説を詠んでいるものがある(「田使君賡和詩」)。そこでは、徐福一行が武陵島へ渡ったきり歸らず問題を起こしたかのような描寫をしている。本稿では、その徐福伝説の三陟・蔚珍地域の口承を反映したることを明かすために、「望武陵島行」・「田使君賡和詩」の詩題と詩体の検討を加えた。その結果、その樂府詩であることがわかった。この作業を通じて、その「采詩」としての性格を浮彫りにし、徐福伝説の口承の反映であることを論証しようと試みた。

「望武陵島行」において、作者の作意がよく表われている後半部の詩句を解釋するにあたって、その典故となる唐の韓愈の詩「奉酬盧給事雲夫四兄曲江荷花行見寄」を理解すべく、その典故をも調べながら基礎的な解釋を試みた。その解釋を踏まえて、「望武陵島行」の詩としての性格を、個人の情感を詠んだ古詩ではなく、憂國衷情の時局批判的な眼目をもった樂府詩であることを明かした。その延長線上で「田使君賡和詩」の樂府詩としての性格を論じ、そこの徐福伝説の口承的な性格を明かそうと試みた。

そのほかの三陟・蔚珍地域の徐福伝説の存在を明かすために、その地域から鬱陵島を眺めて詠んだ漢詩の幾つかも解釋・分析した。その結果、三陟・蔚珍地域には、過去ある時期に<鬱陵島人=徐福後裔>の口承のあったことが分かった。

キーワード：徐福 武陵島 鬱陵島 蓼田山城 三陟 蔚珍 李承休 田文胤 動安居士
田使君 賡和詩 韓愈

투 고 : 2010. 5. 31
1차 심사 : 2010. 6. 12
2차 심사 : 2010. 6. 26